

국힘 퇴장 속 이상민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야당 단독처리...찬성 182명

이재명 "진실의 문 여는 출발점"

대통령실 입장 없어 거부권 수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의 경우처럼 장관 해임 건의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가 이례적으로 휴일이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최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체포와 사법 처리에 쫓긴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전 의총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해임 건의가 이태원 참사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정부 노력과 배치된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정식으로 통지받으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국회의 해임건의문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통지되기까지 하루가량 걸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이르면 28일 특별사면...MB 유력·김경수 거론

정치인 위주 단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9일 통화에서 "12월 28일~30일께 신년 맞이 특사를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토요일)이나 1월 1일(일요일)이 주말인 점을 고려한 일정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던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유력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는 게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 전 대통령 외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경제인을 위주로 사면했던 만큼 이번에 정치인을 사면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특사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면 특성상 막바지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지난 광복절 특사 이전에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 거론됐다가 최종 단행되지 않았던 만큼 신

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일단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되지 않으면 2028년 중순께 피선거권이 회복된다.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셈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사 관련 실무 보고에 착수한 상태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르면 오는 28일께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 단행 시기가 달라지면 사면심사위 자체도 얼마든지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통령실 뉴스룸' 신설... "대국민 소통 강화"

尹 유튜브와 연계 확대

대통령실은 11일 공식 홈페이지에 '뉴스룸'을 신설했다. 기존 메뉴의 '브리핑룸'을 대폭 확대한 형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보도자료를 단순히 가공해 게시하는 브리핑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홈페이지에는 '국민에게 알립니다'라는 대

제목 아래 '브리핑룸'과 '카드뉴스' 등의 세부 메뉴가 붙어있는 정도였다.

지난 10월 네거티브 대응 강화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사이다)를 추가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여기에 '사진뉴스'와 '영상뉴스', 그리고 짧은 유튜브 세로 영상을 게시하는 #SHORTS(쇼츠) 등의 메뉴를 더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한 공식 유튜브 '윤석열 채널(@president_yoon)'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그 영상을 홈페이지로도 적극적으로 퍼 나를 계획이다.

다만, 홈페이지 개편을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과 연결 짓는 일부 시각에 대해선 선을 그쳤다.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출입 기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는 대신 다른 소통 채널을 다양화하는 차원의 개편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좋은 뉴스나 핵심 메시지를 담은 기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개편은 오래전부터 준비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전히 지금 상태로는 도어스테핑을 재개하기 어렵다"면서도 향후 재개 여부나 방식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율 33%...3주 연속 소폭 상승

갤럽 조사...부정평가 5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59%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11월 29일~12월 1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1월 3주차에 29%로 집계된 이후 3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9월 3주차 59%를 기록한 이후 내내 60%대였다가 12주 만인 이번 조사에서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24%),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목심'

(6%), '주관·소신'(5%), '국방 안보'·'외교'·'열심히 한다'·'경제와 민생'(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독단적·일방적'·'소통 미흡'(이상 9%), '외교'·'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전반적으로 잘못한다'·'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이상 8%), '인사'(6%),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공정하지 않음'·'노동자 처우와 노동정책'·'통합·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36%,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32%를 각각 기록했다. 무당층은 2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전남지방우정청
KOREA POST

고객의 자산은 물론 미래까지 지켜주는 이것이 바로 **우체국예금**의 료 **우체국 료!**

우체국 예금
국가가 전액보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